



정교회주보

제2569호

2026년 3월 22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어둠을 뚫고 비친 복음의 빛, 그 찬란한 유산이 머무는 곳. 키프로스 바포의 지금 모습과 성 아나르기리 성당

(사순절 제 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성 깔리니키 순교자
(제8조 • 조과 복음 8)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23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223
- 사도경 : 히브리 6,13~20 233
- 복음경 : 마르코 9,17~31 139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6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12회] 살라미스와 바포

살라미스에 상륙한 바울로 사도와 일행은 키프로스 섬을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며 복음을 선포하였다. 여정의 끝은 당시 총독부가 있던 행정 중심지 바포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성적인 인물이었던 로마 총독 세르기오 바울로를 만났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엘리마라고도 불리는 마술사 바르예수가 있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었다.(사도행전 13,6-8)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로는 바르예수를 단호히 꾸짖었다.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사도행전 13,10) 사도의 엄중한 질책이 떨어지자, 바르예수의 눈에는 안개와 어둠이 덮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손을 잡아 줄 사람을 더듬어 찾게 되었다. 이 놀라운 표징

을 목격한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침내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사도행전 13,12) 이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참된 빛 앞에서 거짓의 어둠이 물러나는 영적 승리였다.

이 사건은 바울로 선교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성서는 이때부터 ‘사울’ 대신 ‘바울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고, 선교 여정의 중심도 바르나바에서 바울로 사도로 옮겨진다. 그러나 이는 인간적 서열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장하는 섭리를 드러내신 것이다. 키프로스는 이처럼 어둠을 깨치고 복음의 빛이 처음으로 로마의 권력자에게 비친, 하느님의 구원이 밝게 드러난 자리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사람이 태어나기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순결하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때가 왔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찬 순간은,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던 순간(성모 희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령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에 마리아보다 더 순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성 대 바실리오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는 ‘파나기아(지극히 거룩하신 분)’라는 단어 자체가 ‘모든 성인들 위에 계신 분’을 뜻합니다. 그분은 순결함에 있어서 모든 성인들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순교자들, 교부들... 그 누구도 그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마태오 5,8) 그리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마태오 15,19-20)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동정녀 마리아는 평생 동안 “순결한 그릇”, “순결의 보고”, “흠 없는 그릇”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2고린토 2,15). 동정녀 마리아가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한 “향기로운 백합”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성모님께 들어 올리며 온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순결한 분이시여, 저희도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 있는 향로가 되어, 순결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구석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싹트지 않은 덕이 남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당신처럼 은총을 담은 그릇이 되어, 우리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소서!”

기도: 입술에서 마음으로 (1)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노 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땅에 씨를 뿌리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 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경륜(經疏)에 의하여 어느 순간 기도가 입술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신비가 드러납니다. 참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신비 말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지속적인 현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호흡과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에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달콤한 기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짧은 기도가 더 이상 입으로만 말해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마치 심장의 고동(鼓動)과 맥박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일정한 가락에 맞추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진실하게, 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언제나 말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와 고요함,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도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빛을 밝혀주며,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부산 성모 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3월 25일(수)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 희보 성당의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충만한 은총과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성모 희보 축일

3/24(화) 오후- 대만과

3/25(수) 오전- 조과, 성찬예배
오후- 석호소과, 대까논

* 3/26(목) 오후

석후대과

* 3/27(금)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각 성당 예배는 문의바랍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금요일 오전 9시

■ 사순절 예배 차례

사순절 평일 예배에 많이 참여합니다. 25일(수)은 연중 1회 거행되는 ‘대까논 예배’가, 27일(금)은 올해 마지막 ‘성모 기립 찬양’이 거행됩니다. 모두 중요한 예배이니 꼭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오늘(22일)부터 수도원이 정상 운영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알림

■ 성모 기립 찬양 1400주년 기념

이번 금요일(27일)은 성모 기립 찬양의 마지막 차례로, 1-4 스타시스를 모두 봉독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서기 626년, 콘스탄티노플이 적의 위태로운 공격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자들이 블라헤르나 성모 성당에서 처음으로 ‘기립하여’ 성모 기립 찬양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사건 1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특히 세계 총대주교청을 중심으로 이 기념일을 더욱 성대하게 경축하게 됩니다.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서울 성당 방문

지난 14일(토),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속 연구원들과 서울대 종교학과 학생들 약 20명이 서울 성당을 방문하여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로부터 정교회 전반에 관한 여러 설명을 들었습니다.

■ 서울 성당 꽃 심기

다음 주일(29일), 점심식사 이후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는 왜 필요합니까?

한번은 어느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제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친애하는 형제여, 당신의 질문은 마치 ‘태양은 필요한데, 그 빛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